

저는 부산에서 열리는 국제영화제에 대하여 소개하겠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는 99년으로 제4회째입니다. 제1회때에는 그다지 좌석예약이 많지 않았지만 점점 신용을 얻어 제4회때에는 거의 모든 영화가 매진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만큼 인기가 많아진것입니다.

이 영화제의 좋은점은 첫째 개막작품과 폐막작품이 야외극장에서 열리기 때문에 색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영화제는 가을에 열리는데 높은 가을하늘아래에서 밤하늘의 별과 영화를 함께 감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인들은 어두운 극장에서 영화를 감상하기보다 개방된 곳에서 영화를 감상하고 가까운 해운대 바다로 나가는 것도 좋을것이다. 둘째, 어떤 영화는 배우는 물론 영화감독과 만날수있다. 영화에 관심이 있는 매니아들은 이들을 만나기위해 타도시에서 오는 경우도 있다. 멋진 영화와 훌륭한 배우와 감독을 만나고 그리고 운이 좋으면 배우와 감독에게 질문할 기회가 주어질수도 있다. 이 얼마나 멋진 추억이 될것인가?

그리고 극장이 몰려있는 남포동 극장가에서 5분거리에는 언제나 생동감이 넘치는 자갈치시장이 있다. 영화가 끝나면 자갈치에 들러 신선한 회를 먹는 재미도 누릴수있다.

2000년 9월 or 10월 경에 열리는 제5회 부산국제영화제에 여러분도 참석해보지 않겠습니까? 기대해도 실망은 없을것입니다.